

전남 시외버스 노선 82% 적자...고민 깊은 '지역민의 발'

인구 감소·고령화에 이용 급감...노선 218개 중 179개 적자 운행 한해 혈세 160억...도민 불편·적자 줄일 대중교통체계 마련 시급

전남지역 시외버스 노선 82%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세금을 투입 한해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외버스 운영업체들은 매년 적자 규모가 달라지지 않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를 이용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류비, 인건비 등이 오르는 구조를 감안하면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고령층이 많은 전남에서 '지역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무작정 없애거나 줄일 수 없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뼉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유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소멸위기에 시외버스 운영을 줄이고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시외버스 218개 노선 가운데 179개(82%) 노선이 적자를 기록, 282억원의 손실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금호고속과 광신고속, 광우고속, 동방고속, 동광담양 등 5개 운송사가 시외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개 운송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남도는 지난해 총 손실액의 57%에 해당하는 160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자노선 손실액과 차량등록대수, 유류사용량을 산출해 운송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시외버스 노선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 건 이용객 감소 영향이 크다.

당장 지난 2019년 1469만 4000명이었던 전남 시외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절반(813만 8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의 경우 2019년의 60% 수준인 880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사·군별 시외버스 노선의 적자 현황과 관련, 운송사들의 경영상 비밀"이라며 "동부권의 한 노선의 경우 한해 적자만 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시외버스 노선의 적자상황은, 일선 시·군의 시외버스 터미널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인구 1만 823명의 보성군 별교읍의 경우 지난 2023년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가 폐업하면서 군이 직접 터미널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별교읍은 군청 소재지인 보성읍보다 인구가 많은 곳인데, 과거 14개 플랫폼을 두고 수많은 시외버스가 오가던 것과 달리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타 시·군의 시외버스터미널 및 노선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열악한 대중교통망 때문에 자차를 구매하는 도민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2024년 기준 전남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27만 7926대로 전년(125만 386대)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는 2023년 180만 4217명에서 2024년 178만 8819명으로 줄었지만, 자동차 대수는 늘어났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고령인구 증가로 직접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인구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운전이 가능한 세대에서 만큼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시외버스 운송사들은 전남도에 더 많은 손실액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전남도는 지역균형특별회계 자금으로 적자노선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시외버스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전역이 시내버스 노선에 쓰이고 있어 시외버스 노선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전남도는 고질적인 시외버스 적자 상황과 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 연구 용역에 따라 대중교통 시스템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까지 추진될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의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서진 화순 대형 풍력발전기 "광" 21일 새벽 2시 50분께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일대 금성산풍력발전소에서 타워 127.5m, 블레이드 71.5m 규격의 11기(4.7MW)중 11번째 풍력발전기 하단이 꺾이는 사고(현재 점선 안)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순군은 이날 타워 제작사 및 본사와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10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공탁 했다고, 반성문 썼다고...형량 깎아줘야 하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을 했다고, 진정성과 무관하게 반성문 썼다고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 공정한 판결일까.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정기회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기 위한 '2025년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관련 '기습 공탁'을 방지하는 등 양형 기준을 변경한 데 따라 현장에서 실제 형사 재판에 담당하는 판사들이 달라진 양형 기준을 공유하고 고른 양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광주고법 본원 및 관할 지법,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꼼수 감형'과 관련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도 모르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정기회의 '꼼수 감형' 논란 도마에 올라 반성문 대필 등 문제점 지적도

게 '기습 공탁'을 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다.

법선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꼼수 감형' 때문에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던 '반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얘기까지 도는 등 반성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법 부장판사는 "진정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와 관련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피해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이른바 '의상합의')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피해회복 관련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 결과는 각각 원외재판부인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와 제주의 형사재판부에 공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회의 결과가 법관의 양형 실무에 도움을 주고, 광주고법 전체의 양형 판단이 보다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두달만에 또...제석산 구름다리 안타까운 추락사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대응마련에 나섰다.

21일 광주남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10분께 남구 봉선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0대 A씨가 홀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999년 지어진 제석산 구름다리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이 구름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2월 9일 새벽에도 제석산을 간 40대 B씨가

같은 장소에 설치된 안전시설을 스스로 넘어가 추락했다.

잇단 사망 사고로 남구청은 안전시설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높였지만, 이 역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남구 관계자는 "건설과, 시·사회재난과, 경찰서, 보건행정과랑 협업해 대응을 마련하겠다"며 "안전 시설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잇단 사망사고' 대불산단 업체 특별감독 촉구

시민단체·노동계 "올들어 5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하라"

영암 대불산단내 선박블록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광주전남노동안 전보건의자킴(준)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목숨이 또다시 바락에 내던져졌다"며 "중대재

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일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대불산단에 서만 노동자 5명이 사망했으며, ㈜유일에서는 2023년 하청노동자 추락사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노동부와 전남도는 ㈜유일에 대한 특별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대불산단 하청구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유일 공장에서는 태양광 수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20여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달 8일에도 같은 공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작업 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